

## 편집장의 글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의 이분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갈수록 축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형유산 국제저널 제8호에도 그런 주장에 힘을 보태는 글이 많이 실렸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은 더 많은 지지와 지역사회 참여 속에 10주년을 맞았지만 동시에 더 본질적인 질문을 불러왔다. 저자 중 한 명이 말했듯이 이번 호에 실린 글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요소는 지역 정체성, 과거 경험, 장소성, 역사성이다. 이는 '유산'은 추론적 관습으로, 국가가 일종의 집단적 사회 기억을 쫓아가며 정체성을 구축하는 방법이라는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의 가설을 떠올리게 한다.(Hall 2000, 5)\*

이번 호에 실린 글 중 다수가 무형문화유산협약의 가치 및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며, 그 핵심 원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고 또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2003년 협약을 그 '손위'뻘인 1972년 세계유산협약, '손아래'뻘인 2005년 문화다양성협약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평가한 글도 있다. 이처럼 여러 협약이 복잡다단하게 뒤섞인 상황에 지적 재산 관리와 인터넷 자원 활용이란 문제와 같은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문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은 퍼포먼스 문화의 복원과 방향전환 외에도 이를 국가 의제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통제 및 절충의 메커니즘을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가면극은 400년에 걸쳐 노예제도, 해방, 식민지화, 독립을 거치는 동안 아프리카계 바베이도스인들의 역사 및 체험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우리의 가면을 잃으며」에서 저자는 다양한 문화 장르가 바베이도스의 본질적 문화 정체성을 규정하는 국가 의제 안으로 '집결'되어 마침내 1970년대 크롭오버(Crop Over)라는 사탕수수 수확 축제라는 결실로 이어진 진화의 여정을 조명한다. 이러한 퍼포먼스의 핵심에 남아 있는 고대가면극 전통(가면 제작에 쓰이는 말린 파초잎까지)은 애초 사회 전복적이라 간주되었고, 이후 시대착오적이고 역기능적이라 비판 받으며 바베이도스 서사에서 소외되었다. 이 글과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웨일스의 무형문화유산」은 말 두개골을 장식해서 들고 무리를 지어 다니며 노래를 부르는 겨울 전통 마리 루이드(Mari Lwyd)를 소개한다. 저자는 마리 루이드가 웨일스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 보호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국정부가 현재 협약 비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독특한 전통이 상업적으로 곡해되고 퇴보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우려도 덧붙였다. 두 글 모두 문화의 존속 혹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비의도적 결과에 의해 시행된 법규와 정책이라는 역설적 상황을 알리고 있다.

「무형유산 제자리 찾기」에서 저자는 유형과 무형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 개탄한다. 무형유산의 정수도 특정 장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만큼 장소가 없으면 유산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무형유산 보호에 있어 해당 지역사회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소성'은 하르(harr)라는 대기 프로세스가 스코틀랜드의 무형유산으로 마땅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오늘의 공기, 내일 사라지다」에서도 부각된다. 저자는 하르를 다룬 시와 사료, 시각적 표현물 외에도 이 일시적 현상을 소중히 여기는 국민정서를 예로 제시하며, 미기후(microclimates)도 무형유산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변하는 라이프스타일이 어업과 어장, 어민과 관련된 무형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글도 두 개에 달한다. 하나는 지중해, 나머지 하나는 카리브해로 지역은 다르나, 모두 특정 어종(참치와 날치)에 대한 세세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 전통요리에 맞춰 발달한 특별한 손질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두 저자는 한 목소리로 2003년 협약에서 지향하는 보호책 및 전략의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달루시아의 참치 잡이」는 유산의 민족학적 가치를 강조하며 그 개념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동시에 건축물 복원, 구두증언 녹취, 작가 등 예술가에 의한 작품 활동 등으로 분류(및 확인)하는 전략을 취할 것을 제안한다. 「바베이도스의 생물문화유산」에서는 바베이도스를 대표하는 무형유산으로서 날치의 취약성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현재 아무런 규제 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체 수의 감소와 기후변화, 가격통제, 해양경계 분쟁으로 인해 날치의 식량자원으로서의 위치와 국가상징으로서의 위치가 모두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장소성」의 저자는 사람들이 장소 및 유산과 형성하는 유대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를 통해 웨일스 방문객들의 경험에 정통성이 더해진다고 설명한다. 양질의 해석 디지털 콘텐츠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인터넷 도구를 다양하게 적용하면서 유산 전략, 전문 관행 및 생산에 관한 간략한 개설을 제공하는 한편, 역사 연구에 있어 대중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유산경관에서 빠졌던 측면들이 회복 및 재구성된다. 「지적 재산의 역할」에서는 한 국가의 무형문화유산 내에 존재하는 지적 재산의 개발과 관리라는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위 「장소성」이 종사자, 연구자, 생산자의 공조를 통해 생산적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지적 재산의 역할」은 기술의 세계화가 신중하게 활용되지 않을 경우 한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다. 저자는 박물관에 전시된 일부 지역사회 기반 무형문화유산의 취약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가장 본질적이라 할 수 있는 이 박물관의 기능이 예기치 않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린다. 박물관의 윤리적 관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무형유산 보유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몇 가지 효율적인 지적 재산 체계를 소개하면서 저자는 박물관이 지적 재산을 창출할 수도 있으며, 생산자와 보호자의 역할을 한데 수행하려면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지적 재산권과 무형유산 접근법 사이에 존재하는 모순과 이 모순이 특정 장소와 관련된 '체득된 의식(lived consciousness)'에 미치는 영향은 「무형문화유산의 경관으로서의 지역사회」에서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파초를 이용해 직조하는 오키나와 전통 직물 바쇼후(Kijoka-no-Basho-fu)의 사례연구다. 지역사회의 지적 재산권을 각종 전통 공예 단체 설립 및 '덴-마크(Den-Mark)'를 통한 단체인증 제도로 보호하는 일본정부의 정책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교토의 직물 제조업에 불어 닥친 변화에 관해 다른 또 다른 글에서도 기모노 생산이 언급되지만, 관점은 정반대라 할 수 있다. 본래 바쇼후는 오키나와 시골에서 입던 일상복이었는데 이후 중국 황제를 위한 조공과 봉건시대 무역품으로 격상됐고, 현재 일본 사치품 시장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그런데 500년 전부터 교토의 황실과 귀족들을 위해 생산되었던 최고급 니시진 비단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복잡한 전승 고리가 깨지면서 쇠락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몇 십 년 동안 경제 불황이 겹치고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패션 취향도 급변하면서 전통 수공업품의 존속이 위협 받고 대대손손 이어졌던 견습제가 빠르게 무너지게 되었다. 시골에서 주로 생산되는 바쇼후도 1970년대 비슷한 위기를 겪었지만 생산과 거래 방식을 법제화하여 돌파구를 마련했다(물론 이러한 '지역성 생산'이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춰져 있기는 하다). 저자는 현대사회에서 수공업품을 보존할 수 있는 수단인 이러한 '전통의 상업화'에 대한 재고가 시급하다면서, 전통 생산의 공유 공간 안팎에 있는 사람들의 공간적 상호연관성을 가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살펴보면, 저마다 커뮤니티, 즉 '지역사회'란 단어에 다양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가 종사자들로 하여금 무형유산의 시공간 배치를 구현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작업이 '전통'으로 인식되도록 대중의 시각에 영향을 미친다. 「지역사회 협약?」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춘다. 저자는 지역사회를 유산 보호 과정의 구심점으로 만든다는 목표 하에 탄생한 2003년 협약 내 '지역사회'의 의미와 의도를 탐색한다. 그러나 협약의 무형유산목록 등재 신청 결정 및 준비와 관련한 지역사회의 역할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사전 동의가 이루어진 방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이러한 과정과 연관된 문화정치학에 대해 흥미로운 견해를 아울러 제공하고 있다. 저자들의 다양한 사례 연구는 무형유산 보호와 관련한 참여적 접근방식이란 맥락에서 과연 누가 '지역사회'를 구성하는가 라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동시에 협약의 정신(목적은 아니더라도)을 고수함으로써 그러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속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 실린 글들을 통해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초기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에 명시된 개념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결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유형과 무형의 결합 및 인위적 분리에 초점이 맞춰져, 이 두 가지 유산 유형 사이 간극을 메울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저자에 따르면, 논리와 경험으로 이루어 볼 때 이런 분열된 접근방식을 택할 경우 중요한 유산의 가치가 사라질 수 있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무형유산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최근 출판물들을 살펴보면 비슷한 의문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물관의 무형유산』 평론가는 제목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박물관이 '문화의 아카이브' 이자 신생 '사회적 공간'으로 재조명되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의 목적은 무형유산을 개념적, 실용적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자는 '두 문화의 공존'이란 개념을 기반으로 한 국가적 대화 공간, 살아있는 추모의 공간, 혹은 무형유산의 존속을 통해 원주민, 이민자 공동체에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들을 연구하는 인류학적 조사의 장 역할을 하는 다양한 대안 박물관 모델을 소개한다. 『무형유산의 감축을 느끼며』는 무형유산 보호라는 임무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 평론가는 '무형유산 관련 협약을 만들고 평가'하는 데 따르는 긴장, 무형유산 개념을 적용함에 있어 문화를 그저 구체화된 자원의 집합체가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 체계로 인지해야 할 필요성 등에 집중한다. 마찬가지로 보편화 개념이 지역별 필요와 관심을 담아내야 한다는 주장 역시 현재 진행 중인 담론을 반영한다. 두 책 모두 이번 호에 실린 글에서 '유산화의 역설(paradox of heritagisation)'이라 표현한 현상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텍스트 에디터 파멜라 인더(Pamela Inder)와 내가 창출해낸 결과물은 '혼합된 정수'라 할 수 있다. 장소의 물리적 특성에 각 지역사회가 부여한 무형의 가치를 불어넣고,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기념비적 유산과 일상적 유산, 영구적 유산과 일시적 유산 등 다양한 풍미를 뒤섞어 흥미진진한 내용과 새로운 도전과제로 가득한 제8호를 내게 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

알리산드라 커밍스(Alissandra Cummins)  
편집위원장

\*스튜어트 홀(Stuart Hall), '누구의 유산인가? 유산 뒤집기, 국가 후 시대 재구성하기(Whose Heritage? Un-settling 'The Heritage', Re-imagining the Post-Nation)', 1999년 11월 1일 영국 맨체스터에서 열렸던 컨퍼런스 '누구의 유산인가? 영국의 살아있는 유산에 대한 문화다양성의 영향(Whose Heritage? The Impact of Cultural Diversity on Living Heritage)' 기조연설, Third Text, vol.49, Winter: 1999-2000.